

월요광장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16세기의 호남학은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배출로 너무도 찬란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시문학에서도 호남의 문인들은 조선 문단을 장악할 정도로 우수한 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일제 이항,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춘, 고봉 기대승, 사암 박순, 건재 김천일 등 탁월한 학자들이 호남학을 온 나라에 펼치면서 성리학의 논리가 세상을 이끌어 갔다. 그런 찬란한 학문적 축적은 끝내 의리의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말 임진왜란에는 호남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병장으로 변신, 조국을 지키는 보루 구실을 해내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17~18세기에는 하서·고봉과 같은 수준의 학자가 나오지 않아 호남학이 매우 적막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나는 오래전에 ‘17~18세기 호남 유학의 전통’ 〈한국문화학연구〉21

18세기 호남학자 손재 박광일

집, 1998)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7~18세기에도 호남 학은 연면히 이어 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여 높은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논리 근거의 하나가 바로 17~18세기에 활동하여 학자로서의 업적이 탁월한 손재(遜齋) 박광일(朴光一:1655-1723) 선생이다. 고봉 기대승이 1572년 46세로 세상을 떠났고 손재가 탄생한 해는 1655년이니 그 사이가 83년으로 백여 년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봉과 손재 사이에도 수는 강항, 우산 안방준, 고산 윤선도 등 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17세기에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점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 정보가 어둡던 시대여서, 호남학은 하서와 고봉을 거쳐 100여 년 만에 손재가 태어나 학문을 이어 갔다는 주장을 편 학자들이 있었다. 당대의 학자 풍서(豐璽) 이민보(李敏輔:1720-1799)는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지나 백여 년 만에 손재 박공이 나왔다. (湖南之學由河西高峯百有餘年而故徵士遜齋朴公作焉)”(遜齋集跋)라고 말했고, 매산(梅山) 홍자필(洪自弼:1776-1852) 또한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경

유해 손재·목산(李基敬)에 이르고 또 위백규(魏伯圭) 공이 두 분을 이어 나왔다. (湖南之學由河西高峯而至于遜齋木山公又殿兩賢而作… ‘魏伯圭墓誌銘’)”라고 말하여 하서와 고봉을 잇는 학자가 바로 손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민보는 “손재는 하서·고봉 이후의 일인자라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었는가? (遜齋之河西高峯後一人豐璽也哉:같은 글)”라고 말하며, 하서·고봉 이후의 학자로 손재가 제일인자라고까지 말하였다. 손재는 순천 박씨로 문숙(文肅)공 박석명(朴錫命)의 후손으로 광주 출신이다. 아버지 우현(禹鮮) 박상현(朴尙玄)은 큰 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학문을 논하고 절친하게 지냈다. 손재는 아버지의 명으로 경상도의 바닷가 장기에서 귀양 살던 우암을 직접 찾아뵙고 제자가 되어 성리학 연구에 생애를 바쳤다. 학문이 높아져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후 대신들의 천거로 내시교관, 시강원자의, 익위사익위 등의 학자에게 내리는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절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당시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권상하(權尙夏)·정호(鄭浩) 등 우암 문하의 혁혁한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했다. 성리학으로는

높은 수준의 ‘근사록차기’(近思錄答頌)·‘진호문답’(晉湖問答) 등 고차원의 학술 이론을 전개한 저술이 있으며 이 모두를 종합한 ‘손재집’(遜齋集) 12권 6책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손재는 우암의 제자로 우암의 학문과 성리학을 이어 전통 유학에 밝았으나, 당시 당쟁으로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렸다.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은거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학술적인 저술에 생애를 바친 것이다. 근래에 손재에 대한 학자로서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분의 높은 학문과 올곧은 삶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미할 뿐이다. 매우 훌륭하게 간행된 문집이 있고 또 고전번역원 문집총간으로도 간행되어 학문을 알abilir 수 있는 자료는 넉넉하다. 이제라도 17~18세기 호남의 대표적 학자의 한 분인 손재에 대한 연구와 현양 사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재는 아버지도 높은 수준의 학자였고 아우 박광원(朴光元)도, 아들 박중거(朴重擧) 등도 이름 높은 학자였다. 그러니 순천 박씨의 대표적인 학문가(學門家)로 손색이 없는 집안이었다. 광주 출신 학자로서 고봉 다음의 학자임은 그런 데서도 익히 알아볼 수 있다.

기 고



한 정 규
문학평론가

기후 관련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이후 인간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동차 운행 등 경제 활동을 하며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해 2019년 현재 일제적인 430ppm에 육박, 지구의 온도가 1~2도를 상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고 자연 발화나 비가 오지 않은 탓에 산림이 다량 훼손돼 기후 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고 보고 있다. 그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엑스터터 렌튼 교수는 “과거에는 서서히 기후 변화가 진행되다 어느 순간에 지구 온도가 5도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될 거라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 온도가 1~2도 상승하는 사이 기후 변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갑자기 한 쪽으로 기울듯 어느 한 순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에 다다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거나 매우 가까이 온 상태”라고 가다언에 말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우리는 이미 지구 기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기후가 물고 울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철저히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

소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수단인 나무를 보다 많이 가꾸도록 해야 한다. 나무는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기온을 낮추고, 또 물을 저장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물을 필요로 할 때 공급해 준다. 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탄소동화 작용으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생산·공급한다. 뿐만 아니라 물에 녹아 있는 광물을 흡수, 그것들로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포도당, 아미노산 등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인간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것이다. 게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열대 우림이 대폭 감소하는 점이다. 아마존의 열대 원시림은 지구의 허파로서 대기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대신 햇빛으로 탄소동화 작용을 하여 대기로 산소를 배출한다. 이로써 대기 중 70%에 가까운 산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열대 원시림이 안타깝게도 화재 또는 벌목 개간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산림 훼손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20~40%에 달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만큼 산림 훼손이 문

제라는 것이다. 아마존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 에라도르 등 9개국에 걸쳐 흐르는 강으로 그 유역은 세계 최대 열대 원시림 지대다. 그런 아마존의 열대 원시림이 2019년 8월 이후만 해도 2만 9944㎢가 불타버렸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옥수수 등을 경작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개간을 하여 급속도로 원시림이 사라지고 있다.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원시림을 보존하는 일은 브라질 등 아홉 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남극의 빙하와 고산 지역의 만년설, 그린란드의 빙하 등이 급속히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 보존하는 일에 세계 각국 모든 인류가 함께해야 한다. 대기 중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원시림 훼손 그리고 지구 곳곳의 사막화 등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지구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배 동 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옛부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다섯 가지라 했다. 서경 주서의 홍범편에서 오복이란 오래 사는 것,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부(재물), 건강, 덕성이 있을 것, 천수를 누리고 죽을 때 고통없이 죽는 일(孝終命)을 말한다. 통계청의 한국 인구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39.5만 명(7.2%), 2015년 662.4만 명(13%)이었고, 2020년엔 806.4만 명(15.5%), 2025년에는 1033.1만 명(19.8%)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 되는 것을 고령화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17년 8월 노인 인구가 725.7만 명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경우 남자 79.7살, 여자 85.7살로 예상된다. 세계미래학회가 전망하기를 사람의 평균 수명은 1년에 3~4개월씩 늘어나고 있으며, 2050년부터는 1년에 한 살씩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보면 확실히 사람의 오복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복은 보장된 것이라 해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오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리스크엔 생각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뒤따르는 질병, 사고로 인한 고통, 소득의 감소, 배우자 사망, 자녀 부양 문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장수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보더라도 장수가 ‘복’이 아니라 ‘리스크’이거나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떻게 보면, 오복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바람이 오히려 리스크를 안게 주며, 오래 살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인들은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각종 암과 혈관계 질환 발생은 물론 치매 노인의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8%였던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은 2020년 9.7%, 2030년 9.6%, 2040년 11.2%, 2050년에는 13.2%에 이를 전망이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한 명만 생겨도 환자 치료, 간호에 가족들은 정신줄을 놓을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는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도 이를 돌보아 줄 인적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당황하거나 찢찢매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은 장수에 따른 리스크나 재앙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가임기 부부 세대들에게 ‘아이 낳아라’는 공명불만 증언거리고 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나라 차원의 치매 등 질병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장수는 재앙이 될 것이며,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 내도 근본적인 아이 양육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함께 출산율은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오복 가운데 하나인 장수가 리스크나 재앙이 되어 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세대들과 가임기 청장년 세대가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아이 낳기’를 꺼리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찾아내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社 說

능장 구성 5·18조사위 진상 규명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이상 지연됐던 진상 조사위는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엿제 국회의장 및 여야가 추천한 5·18진상 조사위 위원 아홉 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사위는 그 직후 첫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위원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최대 3년간 진상 규명 활동을 수행하게 될 조사위는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는 15명을 제외한 34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이러한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조사 활동은 내년 3~4월께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계엄

군이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를 밝히는 게 가장 큰 임무다. 또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집단 학살 및 암매장,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지난해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나마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지만,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핵심 사안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위원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원회가 작성할 ‘국가 공인 보고서’가 나오면, 5월 역사 외교과 편찬을 막고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온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위원들은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오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 ‘정치판 변질’ 되어서야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 온 것과는 달리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취지로 시작된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광주 지역 일선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현직 구청장의 잠재적 경쟁 상대들이 체육회장 출사표를 던지고 이에 따라 현직 구청장들도 대항마를 물색하는 등 ‘정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니 체육회장 선거마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위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도 내년 1월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체육회에서 각각 선발한 200여 명 안팎의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구체육회의 경우 최근 전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구 체육회 선거도 지난해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 경력이 있는 인사를 비롯해 또 다른 전 시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체육회 선거는 서대현 청장과 임우진 전 청장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회를 만들자’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체육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바닷가 모래알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을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크기, 그리고 아득히 펼쳐진 광활한 모래밭의 면적에 질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거나 ‘무한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위대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래알 계산’(Pssammities)이라는 책 첫머리에서 “겉론 왕이며, 어떤 사람들은 모래알의 수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곧바로 그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전 세계의 모래를 겨자씨 크기로 가정하는 것은 1000알의 모래를 한 뒤 이를 근거로 온 세상에 가득한 모래알의 수를 계산해 냈다. 물론 끝자리까지 딱 떨어지는 숫자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수’와 비슷한 계산법을 도입함으로써 우주 전체에 있는 모래알을 손쉽게 셀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무한’(無限)을 부정하고 깨뜨려 버린 셈이다. ‘무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선 감히 이해하거나 계산해 낼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관념이 바

로 무한이다. 하지만 이 무한은 오늘날 최첨단 물리학인 양자 중력 이론이 등장하면서 ‘진부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자신의 책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quantom)로 이뤄져 있으며, 양자 중력 이론은 ‘무한히 작은 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어 “무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다. 올해 선보인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와 ‘한돌’은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를 품고 있다는 인간의 뇌조차도 낱알이 해석되고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수 천 년 세월 ‘무한’으로 위장해 온 ‘신비’의 영역을 깨뜨린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홀로 설 수 있는 힘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